

제 목	해운대구 국민청원, '이륜차 소음기준 하향' 30년 만에 법령개정 성과달성				
제도 활용 ^① (일자)	기타 적극적 자세 (‘22. 3. 15.)	분 야 ^②	사 회		
자치단체명	부산 해운대구	부서명	교통정책과	전화번호	051-749-4657

① 현황/문제점/필요성

- 스포츠카, 이륜차의 굉음·난폭운전에 더하여 코로나에 따른 배달 오토바이의 증가로 주민의 소음피해 호소 급증
- 현실 체감정도와 괴리가 큰 현행법상 차량 소음허용기준으로 현장에서 소음위반 단속은 되지 않고 있음
 - 제작차·운행차 소음허용기준 : 자동차 100 dB, 이륜차 105 dB

② 조치사항

- 해운대구·해운대경찰서·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업무협약체결 : 2020. 8. 5.
- 3개 기관 주·야간 합동단속
 - 2020년: 3회 34건 / 2021년: 6회 125건 / 2022년: 2회 33건 적발
- 소음허용기준 하향 법령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 제기
 - 2021. 9. 15. ~ 10. 15. / 10,257명 참여
- 국민청원 동참 독려 챌린지 전개
 - 2021. 9. 16. ~ 10. 15. / 시 자치경찰위원장 등 12개 기관장 참여
- 5대 광역시 초·중·고·유치원·어린이집 및 전국 국민운동단체(환경연합, YMCA, YWCA 등) 등 3천여 기관 및 단체에 국민청원 동참 공문발송
- 언론홍보(신문, TV·라디오, 페이스북) 및 현수막 게시 홍보
- 해운대구 전 동 주민과 함께하는 「이륜차 굉음운전 근절」 캠페인
 - 2021. 9. 27. / 450명 참여, 안전신문고 등 앱을 통한 신고방법 홍보
- 전국 14개 기초지자체 연대 설립 및 공동선언 발표 : 2021. 12. 30.
- 국회, 정부(환경부) 및 대선후보캠프 법령개정 건의문 발송 : 2022. 1. 25.

③ 결과/효과

- 차량 소음허용기준 하향 추진, 30년 만에 법령개정 성과 달성

▶ **환경부 발표(이륜차 소음관리체계 개편 법령개정 계획) : 2022. 3. 15.**

- 제작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86 ~ 95 dB로 강화
- 배기소음 95 dB 초과 이륜차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 운행제한
- 저소음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지원 및 상시 소음단속 시스템 도입

④ 관련규정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제40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별표 13]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

<이륜차 소음허용기준 개정(안)>					
구 분	배기량	현행		개정안	
		제작	운행	제작	운행
배기 소음 (dB)	175cc 초과	105	105	95	95
					인증 결과값+5dB
	175cc 이하 80cc 초과			88	88
				인증 결과값+5dB	
	80cc 이하	102		86	86
					인증 결과값+5dB

참고자료



AUTOWEALD
잠 못드는 밤 사라지자, 환경부 이륜차 소음 규제 30년 만에 개선 추진

영호민 기자 | 일제 2022. 03. 15. 15:08 | 댓글 91개



주거지와 도로를 가리지 않고 굉음을 내는 이륜차 소음이 줄어든다면, 환경부는 15일, 이륜차 소음허용 기준과 이동 소음 규제 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륜차 소음 규제는 1993년 마련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